

韓國教育論叢

Kore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019. VOL.40 No.2. pp.35~56

## 중국인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

강 비<sup>1)</sup>

중국 산둥공상대학교

---

### <요 약>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하도록 교육하는 방법을 탐구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발음은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학습자가 목표 언어에 대한 유창성과 정확성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제2외국어를 학습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하는 원인 중 하나가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요인이 많이 작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분류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체계의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국에서 태어나고 중국에서 거주하는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을 위해 한국어를 정확히 발음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발음 교육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한국어 발음, 한·중 대조분석, 음운체계, 발음 교육

---

1) 교신저자, jiangfei-007@163.com

## I. 서론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중국에서 태어나고 거주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전공하는 대학생들이다. 그들이 한국어 발음을 정확하고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수 방안을 탐구하여 제시해보고자 한다. 외국어 교육의 최종 목표는 목표어(target language)로써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데 있다. 아무리 어휘와 문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더라도 발음을 잘 못하면 의사소통에 많은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색한 발음이 고착화되면 고급으로 올라갈수록 교정하기가 더욱 더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발음 교육의 중요성은 초기 단계에서 강조 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인 학습자들은 발음교육에 있어 학습자의 모국어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 요인이 많이 작용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의 모국어 음운 특성에 따라 체계적인 발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발음 교육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대조함으로써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이 한국어 효과적인 발음 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발음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에서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을 대조함으로써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체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 그 다음 한국어 각각의 음소에 대한 발음 방법을 제시하여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

목표어의 소리 체계를 익히는 것은 외국어의 학습과 구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언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와 목표어 간의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인이 되고 나서는 외국어를 학습함에 있어서 기존의 모국어 음절 구조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음절 구조가 언어마다 다르다는 특징을 외국어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동일한 분절음이라 하더라도 언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 어떻게 운율적 자질을 변화시키는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다르게 전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음운론적 요소를 운소라고 한다.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운 대조를 통해 음운 차이, 운소의 차이 등을 살피고 그 특징을 파악하여 교육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이승연, 2012).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과 모음 체계의 특성과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 1) 한국어의 자음 체계

박덕유(2013)에 따르면 목청을 통과한 공기의 흐름이 입안 또는 입안의 어딘가가 완전하게 막히거나 좁혀짐으로써 방해를 받고 나는 소리를 자음이라 한다. 한국어는 ‘ㄱ, ㅋ, ㆁ, ㄷ, ㅌ,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ㆁ, ㅍ, ㅑ’의 19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다시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하면 순음(양순음), 치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후두음)으로 나눌 수 있으며, 조음 방법에 따라서는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뉘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어 자음은 장애의 유무, 성대의 진동 유무, 기식(送气)의 유무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아래 <표 II-1>과 같다.

<표 II-1> 한국어 자음 체계

조음방법 \ 조음 위치		양순음	치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예사소리(평음) ㄱ [p/b]	ㄷ [t/d]		ㄱ [k/g]
장애음	파찰음	된소리(경음) ㅃ [p']	ㅌ [t']		ㅋ [k']	
	마찰음	거센소리(격음) ㅍ [pʰ]	ㅌ [tʰ]		ㅋ [kʰ]	
		예사소리(평음) ㅅ [ts]				
공명음	파찰음	된소리(경음) ㅆ [ts']				
	거센소리(격음) ㅊ [tʃ]					
공명음	마찰음	예사소리(평음) ㅅ [s]				ㅎ [h]
	된소리(경음) ㅆ [s']					
공명음	비음	ㅁ [m]	ㄴ [n]		ㅇ [ŋ]	
	유음		ㄹ [r/l]			

### 2) 중국어의 자음 체계

표준 중국어에 의하면 중국어에는 b, p, m, f, d, t, n, l, g, k, h, j, q, x, zh, ch, sh, r, z, c, s, 총 21개의 자음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sup>. 중국어의 자음은 한국어의 자음과 같이 조음 방법(발음 방법)과 조음 위치에 따라 분류된다. 첫째, 조음 방법을 볼 때, 기류의 강약과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발음 방법에 따라 마찰음(擦音), 파찰음(塞擦音), 파열음(塞音), 비음(鼻音), 유음(流音)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성대의 진동 여부에 따라 무성음과 유성음으로 나눌 수 있다. 기

1) 중국어에서는 자음이 아니라 성모(声母)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체계 대조를 위해 자음이라고 통일한다.

류의 강약에 의해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눈다. 유기음은 기를 수반하는 소리를 의미하고, 무기음은 기를 수반하지 않는 소리를 일컫는다. 둘째, 조음의 위치에 따라서 중국어의 자음은 양순음(兩唇音), 순치음(唇齒音), 설첨후음(舌尖后音), 설면음(舌面音), 설근음(舌根音), 설첨전음(舌尖前音), 설첨중음(舌尖中音)으로 나뉜다.

양순음은 양 입술을 붙였다 터뜨리는 소리이며, 순치음은 아랫입술과 윗니의 사이에서 나는 소리를 말한다. 설첨전음은 혀끝이 윗니에 닿아서 나는 소리이고 설첨중음은 혀끝과 위 치음 차이에서 내는 소리이고 설첨후음은 혀뿌리를 윗잇몸 또는 경구개 쪽으로 나와 혀를 말아 올리면서 내는 소리이다. 설근음은 혀끝과 어린입천장, 목젖을 붙였다가 떼면서 나는 소리이며, 한국어의 연구개음과 대응된다. 설면음은 전설면과 경구개, 후설면과 연구개사이에서 나는 소리이며, 한국어의 경구개음과 대응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중국어 자음 체계

조음 방법		조음 위치		양순음	순치음	설첨전음	설첨중음	설첨후음	설면음	설근음
		무기음	유기음							
파열음	무성음	무기음		b[p]			d[t]			g[k]
		유기음		p[p']			t[t']			k[k']
파찰음	유성음	무기음				z[ts]		zh[tʂ]	j[tɕ]	
		유기음				c[ts']		ch[tʂ']	q[tɕ']	
마찰음	무성음				f[f]	s[s]		sh[ʃ]	x[ç]	h[x]
	유성음							r[r]		
비음	무성음			m[m]			n[n]			
유음	유성음						l[l]			

### 3)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 비교

한국어 자음의 수는 총 19개인 반면에 중국어 자음의 수는 모두 21개로 자음 개수에 따른 차이가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은 조음위치로 보면 큰 차이가 보이지 않으며,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조음위치 면에서 원칙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그러나 조음 방법으로 보면 차이가 보이므로 아래에서 한·중 양국의 조음 방법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 자음 체계 대조표를 보면 아래 <표 II-3>과 같다.

<표 II-3>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대조표

조음 위치 / 조음 방법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양순음	순치음	설첨전음	설첨중음	설첨후음	설면음	설근음	한	
파열음	평음	ㅂ [p]	b [p]	ㄷ [t]	d [t]			ㄱ [k]		g [k]
	격음	ㅃ [pʰ]	p [pʰ]	ㄸ [tʰ]	t [tʰ]			ㅋ [kʰ]	k [kʰ]	
	경음	ㅍ [pʷ]		ㅌ [tʷ]				ㆁ [kʷ]		
무성음 (장애음)	파찰음			z [ts]		zh [tʂ]	ㄷ [ts]	j [tɕ]		
	경음			c [tsʰ]		ch [tʂʰ]	ㄷ [tsʰ]	q [tɕʰ]		
	격음						ㅌ [tsʷ]			
마찰음	평음	f[f]		s[s]	ㅅ [s]	sh [ʃ]	x [ç]	h [x]	ㅎ [h]	
	경음				ㅆ [sʷ]					
	유성음					r [r]				
유성음 (공명음)	비음	ㅁ [m]	m [m]	ㄴ [n]	n [n]			ㅇ [ŋ]		
	유음			ㄹ [l]	ㄹ [l]					

한국어와 중국어의 자음 체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파열음의 비교

한국어의 파열음은 평음, 격음, 경음의 3분 대립관계가 존재하지만 중국어의 자음 파열음은 평음, 격음, 2분 체계로 존재한다. 한국어 파열음에는 'ㅂ[p], ㅃ[pʰ], ㅍ[pʷ], ㄷ[t], ㄸ[tʰ], ㅌ[tʷ], ㄱ[k], ㅋ[kʰ], ㆁ[kʷ]'가 있고, 중국어 파열음에는 'b[p], p[pʰ], d[t], t[tʰ], g[k], k[kʰ]'가 있다. 한·중

파열음을 대조해 볼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음은 'ㅂ[p], ㅃ[pʰ], ㄷ[t], ㅌ[tʰ], ㄱ[k], ㅋ[kʰ]로 중국어 파열음에서는 'b[p], p[pʰ], d[t], t[tʰ], g[k], k[kʰ]로 나타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파열음 ㅍ[pʰ], ㅊ[tʰ], ㅋ[kʰ]은 중국어에 대응되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2) 파찰음의 비교

仇美琳(2014)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의 파찰음을 비교했을 때 한국어에는 'ㅈ[ts], ㅊ[tsʰ], ㅉ[tsʰ]'이 있고 중국어에는 'z[ts], zh[tʂ], j[tɕ], c[tʂʰ], ch[tʂʰ], q[tɕʰ]'가 있다. 이러한 중국어의 파찰음 중 한국어의 파찰음과 조음위치가 가장 비슷한 음소는 'j, q'이다.

한국어의 'ㅈ, ㅊ, ㅉ'와 중국어의 'j, q'는 조음 위치가 모두 혀바닥과 경구개이다. 조음의 위치 면에서 보면 동일하지만, 중국어의 'j, q'는 뒤따라오는 모음과의 결합에 있어서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전설고모음인 'i, ü'로 시작되는 모음하고만 결합될 수 있다.

중국어 파찰음 'z, c'는 혀뿌리와 윗니 뒷벽 사이에 나는 소리로 조음위치 면에서 보면 중국어의 'd, t'소리와 같지만 조음방법에서 같지 않다. 중국어의 권설음(捲舌音)은 발음을 할 때 혀의 끝을 약간 말아 경구개 앞부분에 가까이 했을 때 나는 소리를 말한다.

## (3) 마찰음의 비교

한국어의 마찰음은 ㅅ[s], ㅆ[sʰ], ㅎ[h]가 있는데 중국어 마찰음에는 s[s], sh[ʂ], x[x], h[h]가 있고, 중국어 마찰음은 한국어에 비해 발달한 편이다. 중국어에는 중국어에서만 존재하는 순치 마찰음 'f'가 있는 반면에 한국어에는 한국어에서만 존재하는 'ㅆ' 자음이 있다. 또한, 한국어 자음 'ㅅ'과 중국어의 's'의 조음위치가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어의 'h'는 연구개마찰음이고 한국어의 'ㅎ'는 성문마찰음이다.

## (4) 비음의 비교

한국어와 중국어의 비음을 비교해 보면 한국어의 비음 'ㄹ[m]'과 중국어의 'm[m]', 한국어의 'ㄴ[n]'과 중국어의 'n[n]'이 거의 비슷한 발음으로 나타난다. 다만, 문연희(2001)에서는 중국어는 음절 구성이 성모, 운모, 성조로 이루어졌고, 운모의 끝에 붙는 운미(韻尾)는 모두 비음 운모(鼻音韻母)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런데 중국어의 비음 운모인 'ng[ŋ]' 발음이 한국어의 'ㅇ[ŋ]' 발음과 유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을 혼동시킬 수 있다. 이는 중국어의 'ng'이 모음 'a, o, e, i' 뒤에만 붙는다는 제한이 있지만 한국어의 'ㅇ'은 이런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5) 유음의 비교

한국어의 유음 'ㄹ[l]'은 중국어의 유음 'l[l]'에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ㄹ'은 그 놓이는 위치에 따라 탄설음 '[l]'과 설측음 '[l̥]' 두 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ㄹ'은 설측음 [l̥]으로 발음할 때는 중국어의 설측음 'l̥[l̥]'과 비슷하다. 한국어 'ㄹ[l̥]' 발음은 발음을 할 때 혀의 앞 쪽 윗면의 가운데가 치조 또는 치조구개에 닿아 공기가 통하는 것을 막은 상태로 혀의 양 옆을 통해 공기를 흘리며 내는 소리이다. 예를 들자면 '물라, 발로, 말로' 등이 있다. 중국어의 'l̥[l̥]' 발음을 할 때 혀의 끝 부분을 세워 윗잇몸에 붙였다가 떼어내면서 소리를 내게 되는데, 이때 기류는 혀의 양쪽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나 한국어 'ㄹ'은 탄설음[l]으로 발음할 때는 중국어 발음에 유사한 발음이 존재하지 않다. 탄설음'[l]'이 나타나는 위치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혹은 외래어의 어두에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라디오, 나라' 등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받침 'ㄹ[l̥]'의 발음을 중국어의 권설음 'er[ʌ]'에 대응시켜 혼돈이 생긴다. 중국어의 설측음 'l̥[l̥]'과 권설음 'er[ʌ]'은 각각 독립된 음소이다.

## 2. 한국어와 중국어의 모음 체계

### 1) 한국어의 모음 체계

박덕유(2013)는 폐로부터 내쉬는 숨이 목청 사이를 지나면서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입안에서 목청을 울리면서 나는 소리를 모음이라 하였다. 모음의 종류로는 입의 안에서 발음을 할 때 입술 또는 혀가 고정되어 움직이지 않는 단모음, 그리고 발음을 할 때 혀의 위치나 입술의 모양이 처음과는 다르게 되는 이중모음을 들 수 있다<sup>2)</sup>. 한국어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아래 부분에 분류해 보았다.

#### (1) 한국어 단모음

한국어의 단모음 분류를 보면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혀의 앞뒤의 위치에 따른 분류법이다. 한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위치(앞, 뒤)에 따라서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혀의 앞부분에서 발음되는 모음(ㅣ, ㅘ, ㅙ, ㅚ, ㅜ)을 전설모음이라 하며, 혀의 뒷부분에서 내는 모음(ㅓ, ㅡ, ㅜ, ㅝ, ㅞ)을 후설모음이라고 한다. 중국어의 운모도 한국어와 같이 나뉜다.

둘째, 혀의 높낮이에 따른 분류법이다. 한국어의 단모음은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2) 박덕유(2013:11).

저모음으로 나뉜다. 고모음은 입을 조금 벌리고 혀가 입천장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다. 중모음은 고모음을 발음할 때보다 혀의 위치가 조금 중간에서 발음되는 모음이다. 저모음은 입을 크게 벌리면 혀의 높이가 가장 낮은 모음이다.

셋째, 입술의 모양에 따른 분류법이다.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에 따라 원순모음과 평순모음이 있다. 원순모음은 입술을 평평하게 하면서 발음되는 모음인 ‘ㅣ, ㅡ, ㅞ, ㅙ, ㅚ, ㅜ’이고, 평순모음은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내는 모음인 ‘ㅓ, ㅕ, ㅗ, ㅛ’이 포함된다.

위의 분류 조건을 토대로 도표화하면 다음 <표 II-4>와 같다.

<표 II-4> 한국어 단모음 분류표

혀의 앞뒤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 모양		평순	원순	평순	원순
혀의 높이					
고모음		ㅣ [i]	ㅞ[y][wi]	ㅡ[ɯ]	ㅓ[u]
중모음		ㅞ[e]	ㅙ[ø][we]	ㅚ[ʌ]	ㅜ[o]
저모음		ㅙ[ɛ]		ㅚ[a]	

(2) 한국어 이중모음

한국어에는 11개의 이중모음이 있다.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달리 두 개의 음으로 이루어져있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반모음 ‘j’로 시작하는 j-계 이중모음이 있고, ‘w’로 시작하는 w-계 이중모음, 그리고 ‘ɯ’로 시작하는 ɯ-계 이중모음이 포함된다. 한국어 이중모음을 보면 아래의 <표 II-5>와 같다.

<표 II-5> 한국어 이중모음 분류표

j-계 이중모음	ㅚ[ja], ㅞ[je], ㅙ[jo], ㅓ[ju], ㅙ[je], ㅞ[je]
w-계 이중모음	ㅚ[wa], ㅙ[wə], ㅞ[we], ㅞ[we]
ɯ-계 이중모음	ㅚ[ɯi]

2) 중국어의 모음 체계

표준 중국어에 의하면 중국어의 모음<sup>3)</sup>은 39개로 구성되는데, 이는 단모음, 복모음, 비음 모음으로 나뉜다. 중국어 모음을 도표화하면 아래 <표 II-6>과 같다.



<표 II-6> 중국어 모음 분류표

단모음	설면원음단모음	a[A], o[o], e[ɤ], ê[ɛ], i[i], u[u], ü[y]
	설첨원음단모음	-i[ɿ], -i[ʮ]
	권설원음단모음	er[ə]
복모음	전설복모음	ai, ei, ao, ou
	중설복모음	iao, iou, uai, uei
	후설복모음	ia, ie, ua, uo, üe
비 음	설첨비음	an, ian, uan, üan, en, in, uen, ün
	설근비음	ang, iang, uang, eng, ing, ueng, ong, iong

중국어의 모음 분류는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단모음은 10개가 있고 그중의 7개는 설면원음운모(舌面元音韻母)(a, o, e, ê, i, u, ü)이고 2개는 설첨원음운모(舌尖元音韻母)(-i[ɿ], -i[ʮ])이며, 마지막 하나는 권설원음운모(卷舌元音韻母)(er)이다. 설첨원음운모(-i[ɿ], -i[ʮ])와 권설원음운모(er)는 설면원음운모가 아니므로 중국어에서는 특수원음운모(特殊元音韻母)라고도 한다.

둘째, 중국어 복모음은 1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중모음은 9개이고 삼중모음은 4개이다. 중국어에서는 음중심이 앞모음에 오는 복모음을 전설복모음(ai, ei, ao, ou), 음의 중심이 뒤에 오는 복모음을 후설복모음(ia, ie, ua, uo, üe), 음중심이 중간에 오는 복모음을 중설복모음(iao, iou, uai, uei)이라고 한다. 한국어에서의 복모음은 모음과 반모음의 결합이다. 그러나 중국어는 운모와 운모의 결합이다<sup>4)</sup>.

셋째, 중국어 비음 모음은 n[n]과 ng[ŋ]이 들어있는 음으로 16개이며 n[n]이 들어있는 설첨비음(舌尖鼻音) 'an, ian, en, in, uan, üan, uen, ün' 8개와 ng[ŋ]이 들어있는 설근비음(舌根鼻音) 'ang, iang, ueng, ong, iong, uang, eng, ing'의 8개로 나뉜다.

### 3) 한국어와 중국어 모음 체계 비교

이 절에서는 한·중 양국의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누어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단모음 체계 비교

한·중 단모음 대조표를 구성해 보면 다음 <표 II-7> 과 같다.

3) 중국어에서는 모음이라 하지 않고 운모(韻母)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 음운 체계 대조를 위해 모음이라고 통일한다.

4) 仇美琳(2014) 참조.

<표 II-7> 한국어와 중국어의 단모음 대조표

혀의 위치 혀의 높이	전설모음				중설모음				후설모음			
	평순음		원순음		평순음		평순음		원순음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한	중		
고모음	ㅣ [i]	i[i], [ɨ], [ɯ]	ㄱ [y]	ü [y]			ㅡ [ɨ]		ㅓ [u]	ㅜ [u]		
중모음	ㅔ [e]		ㅚ [ø]		er [ə]	ㅜ [ə]	e [ɤ]	ㅓ [o]	ㅜ [o]	ㅜ [o]		
저모음	ㅙ [ɛ]	ê [ɛ]			a [A]	ㅓ [a]						

㉠ 고모음의 비교

한국어의 'ㅣ'는 중국어의 'i', 한국어의 'ㅓ'는 중국어의 'u'와 거의 비슷한 음가를 나타내지만 중국어의 전설 고모음 'i'는 앞에 오는 자음이 다름에 따라 변이음 [i], [ɨ], [ɯ] 세 가지로 달리 나타난다. 그리고 중국어의 'ü' 발음과 한국어의 'ㄱ' 발음방법이 유사하다. 한국어의 후설고모음 'ㅡ'는 중국어의 'ci, si, zi' 등에 쓰인 'i'보다 뒤에서 높게 발음되고, 후설고모음 'ㅓ'도 중국어 'u'보다 뒤에서 높게 발음된다. 그리고 중국어 단운모 'o'는 [ㅓㅜ]로 실현되는 것이므로 한국어 모음 'ㅓ'와 같은 발음이 아니다.

㉡ 중모음의 비교

한국어의 중모음은 'ㅔ, ㅚ, ㅓ, ㅜ'의 네 개가 있고, 중국어의 중모음은 'e[ɤ], o[o], er[ə]'의 세 개가 있다. 한·중 중모음 체계 중 하나의 차이를 들자면,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ㅔ, ㅚ'에 해당되는 음이 없다. 그리고 한국어의 'ㅜ'와 중국어의 'e' 발음을 비교하면 한국어의 'ㅜ'는 중국어의 'e'보다 혀의 높이가 조금 낮다. 따라서 이 두 소리를 크게 강조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중모음 'ㅜ'와 중국어의 중모음 'er[ə]'의 발음방법을 대조해 보면 곽향봉(2005)에서는 한국어 'ㅜ[ɮ],[ə]'가 '[ɮ]'로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 자연스러워지고, 연구개와 후설의 거리가 멀어지고, 혀의 끝이 아랫니의 뒤쪽에 닿지만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다. 그리고 [ə]로 발음할 때에는 입술을 약간 펴서 중설이 연구개의 앞쪽에 닿도록 하고, 혀의 끝이 아랫니의 뒤쪽에 있게 되지만 마찬가지로 아랫니에는 닿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 'er[ə]'를 발음할 때 구강은 반은 열리고 반은 닫힌다.

한국어의 'ㅓ'와 중국어의 'o'는 모두 후설 중모음으로서 음소가 발음이 유사하지만 실제 발음을 보면 차이점을 지닌다. 한국어의 'ㅓ'는 중국어의 'o'보다 원순성이 더 강하고 혀의 위치도 약간 높은 편이다.

㉔ 저모음의 비교

한국어의 저모음은 전설모음 'ㅏ'와 후설모음 'ㅑ'의 두개가 있고, 중국어의 저모음은 전설모음 'ê[ɛ]'과 중설모음 'a[A]' 두 개가 있다. 한국어 후설저모음 'ㅑ'와 중국어의 'a'를 발음할 때 한국어 'ㅑ'는 뒤에서 중국어 'a'보다 높게 발음하게 된다. 한국어의 'ㅏ[ɛ]'는 중국어의 'ê[ɛ]'와 발음이 거의 비슷하다.

(2) 이중모음 체계 비교

다음으로는 한국어의 이중모음과 중국어 복모음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를 도표화하면 다음 <표 II-8>과 같다.

<표 II-8> 한국어 이중모음과 중국어 복모음 대조표

한국어 이중모음		중국어 복모음	
j-계 이중모음	ㅏ[ja], ㅑ[je], ㅓ[jo], ㅗ[ju], ㅕ[jɛ], ㅛ[je]	복모음	ai, ei, ao, ou, iao, iou, uai, uei
w-계 이중모음	ㅜ[wa], ㅠ[wə], ㅞ[we], ㅟ[we]	복모음	ia, ie, ua, uo, üe, an, ian, uan, üan, en, in, uen, ün, ang, iang, uang, eng, ing, ueng, ong, iong
ㅜ-계이중모음	ㅡ[wɨ]		

㉕ j-계 이중모음의 비교

j-계 이중모음에서 한국어의 'ㅏ[ja]'는 중국어의 'ia[iA]'와 매우 유사한 발음이다. 한국어의 'ㅕ[jɛ]'는 'ㅣ'와 'ㅏ'를 연이어 발음하는데, 이때 모음 'ㅣ'는 매우 짧고 약하게 발음한다. 이는 중국어의 'ie[ie]'와 아주 유사하고, 한국어의 'ㅛ'와 중국어의 'ie[ie]' 두 모음의 경우도 유사한 발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의 j-계 이중모음 'ㅑ, ㅓ, ㅗ'는 중국어에 같은 복모음 발음이 없지만 유사한 발음을 찾아볼 수 있다.

㉖ w-계 이중모음의 비교

한국어의 w-계 이중모음 'ㅜ'와 중국어의 'ua'는 발음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두 모음은 모두 선행하는 'w'와 'u'모음을 약하고 짧게 발음하는데 후행하는 모음을 강하고 길게 발음한다. 다만 후행 모음을 발음할 때 중국어의 'a'는 한국어의 'a'보다 입을 조금 벌리고 혀의 위치도 조금 높다. 그리고 한국어의 'ㅠ'는 중국어의 'uo[uo]'와 매우 유사하다. 다만 후행 모음 한국어의 'ㅟ'

[ə]’와 중국어의 ‘o[o]’는 서로 다른 모음이다. 한국어의 ‘ㄹ[ə]’는 짧게 발음하고 중국어 ‘o[o]’는 강하고 길게 발음한다. 한국어의 ‘계’는 중국어의 ‘üe[ye]’와 유사한 발음이다. 그러나 한국어의 ‘새’는 중국어에 유사한 발음이 없다.

### ㉔ ㅁ-계 이중모음의 비교

한국어의 이중모음 ‘-니[ui]’는 한국어에만 나타나는 특이한 이중모음이므로 중국어에는 비슷한 발음이 없다. 따라서 이중모음 ‘-니’를 발음할 때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 Ⅲ.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 1. 자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의 자음은 조음 방법에 따라 장애음과 공명음으로 나뉘는데 장애음은 다시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으로, 공명음은 비음과 유음으로 나뉜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조음 방법 때문에 한국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경우에서 대표적인 것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의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이다. 이것은 한국어는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3계열로 나뉘지만, 중국어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 2계열로 되어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무척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음을 분화하는 조건을 기준으로 자음들이 갖는 변별 자질을 지켜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 1) 파열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 파열음 ‘ㅍ[pʰ]와 중국어자음 ‘p[pʰ]’, 한국어 ‘ㅌ[tʰ]’과 중국어 자음 ‘t[tʰ]’, 한국어 ‘ㄱ[k]’과 중국어 ‘k[kʰ]’음과 매우 유사하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발음을 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앞에서 제시한 듯이 한국어의 파열음은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로 나뉘고 중국어는 예사소리와 거센소리로 양분된다. 중국어에서의 예사소리는 한국어에서의 예사소리 또는 된소리에 대응하게 되며, 따라서 중국인의 경우 한국어에서의 두 소리를 같은 소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두 경우를 구별하여 발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후두에 손을 대고 ‘가, 다, 바’와 같이 초성에 예사소리가 나타나는 경우와 ‘까, 따, 뻐’와 같이 초성에 된소리가 나타나는 경우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ㄱ, ㄷ, ㅂ’ 등의 된소리는 후두에 긴장을 준 상태로 발음해보도록 하고, ‘ㄱ, ㄷ, ㅂ’ 등의 예사소리는 후두를 긴장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발음해볼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입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종이 한 장을 둔 채로 ‘까, 따,

빠'등 초성에 된소리가 있는 경우와 '카, 타, 파' 등 초성에 거센소리가 쓰인 경우를 비교하며 발음해보도록 유도하여 두 경우의 차이를 느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된소리가 쓰인 경우에는 종이가 움직이지 않고, 거센소리가 쓰인 경우를 발음할 때에는 종이가 움직인다는 차이를 알 수 있다. 더불어 음성을 들려줄 때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모음과 결합한 형식으로 제시하고 반복적인 발음 연습을 시켜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나면 여러 개의 단어를 보인 후 듣고 고르기, 받아쓰기, 발음 연습하기 등의 방법으로 복습한다. 다음 (1)의 예를 통하여 연습시키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

(1) 가-까-카, 다-따-타, 마-빠-파

## 2) 파찰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 파찰음 'ㅈ, ㅉ, ㅊ'는 경구개음으로 기본적인 경구개음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발음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구개란 입천장의 단단한 앞쪽 부분임을 말하며 센입천장이라고도 불린다고 일러둔다. 발음 방법은 혀끝을 경구개에 대고 공기를 막았다가 공기를 혀 쪽으로 내보내면서 빠르게 혀를 떼어내어 마찰을 일으키며 소리를 내도록 발성 연습을 시킨다(이정명, 2019).

한국어 'ㅈ[tsʰ]'은 발음 기호를 보면 중국어 'c[tsʰ]'와 비슷하게 발음한다. 따라서 이 소리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발음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는 'ㅉ[tsʰ]' 소리와 유사한 소리가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ㅉ[tsʰ]' 소리 발음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그리고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자음 'ㅈ' 소리와 'ㅉ'소리 차이를 인식하지 못한다. 이 경우에는 'ㅈ'은 pánzi(盘子)에서의 'z' 발음과 유사하고 'ㅉ'은 중국어 zhāsi(扎实)에서는 'zh'와 유사하다. 그러나 중국어의 'zh'은 권설음이므로 한국어의 된소리 'ㅉ'보다 혀의 위치가 더 뒤에 있다. 발음 지도 할 때 두 음소의 차이점을 설명해주면서, 'ㅉ' 소리의 조음 위치와 발 방법을 알려주고 교사를 따라 반복적으로 연습시키면서 지도해야 한다. 다음 (2)의 예를 통하여 연습시키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

(2) 지다-찌다, 자다-짜다, 재다-쩌다

## 3) 마찰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의 치조음 'ㅅ, ㅆ'과 성문음 'ㅎ'이 한국어의 마찰음에 속한다. 마찰음의 발음 교육으로 기본적인 마찰음에 대한 설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마찰음은 입의 안쪽 또는 목청 사이의 너비를 좁게 해서, 틈 사이로 공기를 통과하면서 마찰을 시키며 내는 소리임을 설명해준다.

치조음 'ㅅ,ㅆ' 소리를 지도할 때에는 치조음을 속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아랫니에 혀의 끝을 가깝게 댄 채로 윗잇몸과 혀의 끝 간 간격을 좁게 하여 공기를 통과하면서 마찰시키며 내는 소리임을 설명해준다. 또한 한국어 'ㅅ[s]'과 중국어자음 's[s]'를 학습자에게 유사한 발음으로 인식시킨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학습자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중국어 shàngsī(上司)에서의 's'와 한국어에서의 'ㅅ'은 유사하기는 하지만, 'ㅅ'보다 's'의 혀의 위치가 더 앞쪽에 있다. 이와 반면에 중국어 자음에는 'ㅆ'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음소는 없기 때문에 'ㅆ'의 발음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ㅅ'과 'ㅆ'의 발음 부위가 같지만 한국어 'ㅆ'은 발음할 때, 후두 켄깁이 온다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고 반복적인 발음 연습시키면서 지도하는 것이 좋다. 중국어 shàngsī(上司)에서의 'sh'와 비슷한 발음이지만 'sh'는 권설(捲舌)음이고 'ㅆ'는 평설(平舌)음이다. 다음 (3)의 예를 통하여 연습시키는 것이 좋다.

(3) 사다-싸다, 서다-씨다, 사진-싸썬, 살-쌀, 살살하다-쌀쌀하다

한국어 마찰음 'ㅎ[h]'을 지도할 때에는 중국어와 유사한 마찰음 'h[x]'와 비교하면서 두 발음의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한국어 'ㅎ[h]'와 중국어 마찰음 'h[x]'를 비교해보면 중국어의 마찰음 'h[x]' 발음이 한국어의 마찰음 'ㅎ[h]'보다 조음 위치가 조금 앞에 있다. 두 발음은 차이가 있지만 아주 비슷한 발음이다. 한국어 'ㅎ[h]'는 성문음에 해당하며, 목청을 약간 열어 그 좁은 사이로 공기가 지나 갈 때 마찰을 시키며 내는 소리이다. 중국어의 'hehe(呵呵)'에서의 'h'음과 유사하나 조음 위치가 'h'와는 차이가 있다. 한국어 'ㅎ'는 조음위치가 폭넓게 이동하나 중국어의 'h'는 거의 고정적이다. 아래 (4) 예를 통하여 연습시킬 수 있다.

(4) 하늘, 하루, 하나, 회의, 후문, 효과, 후회

#### 4) 비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 비음으로는 'ㄱ, ㄴ, ㅇ'가 있다. 비음은 입안의 통로를 막은 채 공기를 비강으로 내보내며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비음을 교육할 때는 교사가 의도적으로 비음성을 강조하여 발음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어 비음 'ㄱ[m]'과 중국어 비음 'm[m]' 발음은 같은 음운 자질을 가지며 중국어 'shénme(什么)'에서의 'm'와 유사하다. 그리고 한국어 'ㄱ'은 양순음으로 우선 두 입술을 벌리면서 공기는 개방된 비강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는 소리임을 설명해 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어 비음 'ㄴ[n]', 'ㅇ[ŋ]' 음 발음을 지도 할 수도 있다.

한국어 비음 'ㄴ[n]'와 중국어 비음 'n[n]'은 유사하고 한국어 비음 'ㄴ'은 혀끝을 윗니의 뒤쪽에 대고 공기를 막고 혀끝을 윗니에서 떼면서 공기는 코로 빠지게 내는 소리임을 설명해준다. 중

국어 'nǐne(你呢)', 'wǒne(我呢)'에서의 'n' 발음과 유사하나 중국어의 'n'는 한국어 비음 'ㄴ'보다 비음적 색채가 더 강하다.

한국어 'ㅇ[ŋ]' 발음은 중국어에 대응되는 비음이 없지만, 중국어의 모음 운미 'on'소리와 유사하나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 'ㅇ' 발음은 후설과 연구개의 앞부분에서 나는 소리지만, 중국어는 혀뿌리와 연구개의 뒷부분에서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비음 발음 지도를 할 때 중국어에 유사한 비음 발음을 제시하면서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학습자는 거울을 활용하여 혀의 위치나 자신의 입술모양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교사를 따라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한다. 다음 (5) 예를 통하여 비음 교육을 연습시키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다.

- (5) 마, 머, 무, 모, 뮤, 미, 머리, 마리, 미래, 무리  
나, 너, 니, 노, 누, 뉴, 나이, 누구, 누나, 내다  
오, 아, 이, 응, 용, 영, 아이, 영어, 어머니, 외모

#### 5) 유음의 발음 교육

중국어에는 한국어의 유음 'ㄹ'과 비슷한 발음이 존재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다. 그러므로 오히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다. 중국어에 없는 탄설음(彈舌音) 'r'이 한국어에는 있고, 한국어에 없는 권설음(捲舌音)이 중국어에는 있다. 따라서 한국어 'ㄹ'의 변이음을 발음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언급하면서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ㄹ'은 그 놓이는 위치에 따라 설측음 '[l]'과 탄설음 '[r]' 두 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설측음은 혀의 끝을 잇몸에 대어 양쪽으로는 기류를 내보내며 가운데 부분에는 숨이 지나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음으로써 나타나는 소리이다. 예를 들자면, 한국어 '달, 딸, 발' 등의 종성 'ㄹ'은 설측음에 해당한다. 이에 대응하는 중국어에서의 음소 'l'는 종성으로 쓰이지 않고 초성으로만 쓰인다. 따라서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중국어의 특수모음인 /er/에 대응시키는 경우가 많다. 중국어의 'er'은 권설음이므로 한국어의 'ㄹ[l]' 발음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국어의 'ㄹ[l]' 발음은 중국어의 'er' 발음보다 윗니 뒤의 잇몸에 혀의 끝이 더 가깝게 있음을 알려주고, 발음을 반복적으로 연습시켜야 한다.

탄설음이란 혀의 끝 부분을 윗잇몸에 살짝 대면서 내는 소리를 말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 '다리, 소리, 얼음, 우리, 라디오' 등에 쓰인 'ㄹ'이 탄설음에 해당한다. 각각의 변이음을 이해한 후에, 두 소리를 적절히 구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교사가 먼저 몇 번이고 예문을 통해서 발음을 할 때의 소리 내는 방법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다음 (6) 예를 통하여 연습시킬 수 있다.

- (6) 설측음 ‘ㄹ’ : 달, 말, 발, 말썸, 활동
- 탄설음 ‘ㄹ’ : 나라, 아리랑

## 2. 모음의 발음 교육

본 연구에서 한국어 모음의 교육 방안은 다음과 같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뉘어서 보도록 한다.

### 1) 단모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ㅣ’의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의 단모음 발음을 지도할 때에는 교사가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중 양국의 음운 차이와 유사점을 인식하게 하되, 교사는 학습자에게 한국어 각 음소의 조음 위치와 발음 방법을 설명해주면서 한국어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게 한다.

발음할 때에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모음과 후설모음으로 나뉘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전설모음의 발음 교육

한국어 전설모음은 ‘ㅣ, ㅑ, ㅕ, ㅗ, ㅛ’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전설고모음인 ‘ㅣ, ㅑ’는 중국어의 ‘i5’, ‘ü6’보다 각각 뒤에서 높게 발음된다. 한국어 ‘ㅑ’는 발음을 할 때에는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동시에 ‘ㅣ’를 발음하면 내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전설중모음 ‘ㅕ’는 중국어 ‘妹妹[mèimei]’ 발음할 때의 ‘e’와 비슷한 모음이다. ‘ㅕ’를 발음할 때에는 ‘ㅣ’를 발음하는 경우보다 조금 더 입을 벌리고, 앞쪽의 혀를 경구개 쪽으로 올리면서도 ‘ㅣ’보다는 더 낮춘다. 특히 ‘ㅕ’는 ‘ㅣ’를 반복적으로 발음하도록 해서 혀의 위치를 ‘ㅣ’로 고정시킨 상태로 ‘ㅕ’를 발음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전설중모음 ‘ㅗ’는 입술을 둥글게 하면서 동시에 ‘ㅕ’를 발음하면 내는 소리이다. 그리고 한국어의 전설저모음 ‘ㅛ’는 중국어 ‘戀[liàn], 面[miàn]’ 등에 쓰인 복모음 ‘ia’와 유사하게 실현되는 모음이다.<sup>7)</sup>

#### (2) 후설모음의 발음 교육

- 5) ‘i’가 음절을 단독으로 구성할 때에는 ‘yi’라고 표기한다.
- 6) ‘ü’가 음절을 단독으로 구성할 때에는 ‘yu’라고 표기하며, ‘j, q, x’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위의 두 점을 생략한다.
- 7) 오늘날 젊은 한국인들 중 상당수는 ‘ㅕ’와 ‘ㅛ’를 분명히 구별하여 발음하지 않고 모두 ‘E’로 발음한다.



한국어 후설모음은 'ㅡ, ㅓ, ㅕ, ㅗ, ㅛ'의 5개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어의 후설고모음 'ㅡ'는 소리를 낼 때 아래턱이 거의 올라간 상태에서 아랫니가 조금 보일 정도로 입술을 평평하게 하여 소리를 내도록 지도한다. 중국어의 'zi, ci, si' 등에 쓰인 전설고모음 'i'보다 뒤에서 조금 높게 발음된다.

한국어의 'ㅓ' 발음은 대부분의 언어에서 있는 소리이다. 한국어의 'ㅓ'는 중국어의 'u'와 유사한 발음이다. 따라서 'ㅓ' 발음을 가르칠 때는 이를 분명히 설명하고 반복적인 발음 연습을 시킨다. 다음 (7) 예를 통하여 연습시킬 수 있다.

(7) 구두, 누구, 구조, 하루, 주다, 부부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의 'ㅓ[a]'를 중국어 'e[ɤ]'로 대응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모음의 발음에 있어서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소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혼동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음을 크게 강조해서 지도 할 필요는 있다. 교사는 한국어의 'ㅓ'가 중국어의 'e[ɤ]'에 비해 후설저모음임을 설명해주고 발음을 할 때 입술은 펴고 혀는 중간에서 약간 뒤로 가되 구부리지 말게 해야 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다음 예문 (8)과 같은 낱말을 사용하여 발음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다.

(8) 어제, 머리, 너무, 러시아, 허리, 거리, 저기

한국어의 'ㅗ'와 중국어의 'o' 발음 방법을 비슷하나 한국어의 'ㅗ'는 원순모음인데, 중국어 'o'는 비원순모음이다. 교사가 학습자로 하여금 'ㅗ'를 발음할 때는 중국어의 운 'ou'보다 짧게 발음하고 'o'의 소리를 크게 내야 하는 것을 설명해준다. 그리고 아래 예문 (9)와 같은 예문을 통하여 발음 연습을 반복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다.

(9) 오이, 고기, 보다, 주소, 도루, 호수, 모두

한국어 후설모음 'ㅓ'는 'ㅓ'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언어에 있는 음이다. 한국어 모음 'ㅓ'와 중국어의 모음 'a'와 유사한 발음이다. 이러한 유사성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로 하여금 한국어의 후설모음인 'ㅓ'의 연습 과정에서 어려움 없는 방법으로 가르칠 수 있게 된다. 교사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음 'ㅓ'를 익히기 활동을 시키면 된다.

학습이 끝난 다음, 모음으로만 되어 있는 단어를 사용하여 모음을 익히기 활동을 하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 2) 이중모음의 발음 교육

본고에서의 한국어 이중모음 발음 교육은 발음 방법 설명 및 분석, 듣기, 통제 연습 등 단계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한국어의 이중모음은 처음 나는 소리에 따라서 w-계 이중모음, j-계 이중모음 그리고 w-계 이중모음 세 가지로 나뉜다. 한국어 각각의 이중모음의 발음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j-계 이중모음의 교육

j-계 이중모음은 'ㅟ, ㅠ, ㅞ, ㅟ, ㅠ, ㅞ'가 있는데 그 발음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ㅟ'는 단모음 'ㅣ'에서 'ㅗ'로 이어지면서 발음하는 소리인데 'ㅣ'는 매우 짧게 발음된다. 중국어 'ia' 발음과 유사하다.

'ㅠ'는 단모음 'ㅣ'와 'ㅜ'가 이어지면서 발음하는 소리인데 'ㅣ'를 매우 짧게 소리 낸다.

'ㅞ'는 단모음 'ㅣ'와 'ㅙ'가 이어지면 발음하는 소리인데 'ㅣ'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중국어에는 이와 비슷한 모음이 없다.

'ㅟ'는 단모음 'ㅣ'와 'ㅙ'가 이어지면서 발음하는 소리인데 'ㅣ'는 짧고 약하게 소리 낸다.

'ㅟ'는 단모음 'ㅣ'와 'ㅛ'가 이어져서 발음하는 소리인데 'ㅣ'는 짧게 발음한다. 중국어 yào(要)에서의 'iao' 발음과 유사하는데 한국어의 'ㅟ'는 중국어 'iao'보다 높고 짧게 발음한다.

'ㅞ'는 단모음 'ㅣ'와 'ㅜ'가 이어져서 나는 소리인데 'ㅣ'는 짧게 소리 낸다. 중국어 yōu(优)에서의 'iou' 발음과 유사하다.

### (2) w-계 이중모음의 교육

w-계 이중모음은 'ㅘ, ㅙ, ㅚ, ㅜ'의 4개로 구성 되어 있는데 그 발음 방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ㅘ'는 단모음 'ㅛ'와 'ㅚ'가 바로 이어지면서 나는 소리이며, 'ㅛ'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중국어 wā(蛙)에서의 'ua' 발음 방법이 거의 비슷하다.

'ㅙ'는 단모음 'ㅛ'와 'ㅜ'를 바로 이어서 발음하는 소리이며, 'ㅛ'를 매우 짧게 발음한다.

'ㅚ'는 단모음 'ㅜ'와 'ㅣ'를 바로 이어서 발음하는 소리, 'ㅜ'를 짧게 발음하고 'ㅣ' 모음을 강하고 길게 발음한다. 중국어 wǒ(我)에서 'uo' 발음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어의 '위'는 중국어의 'uo'보다 혀의 위치가 약간 높으며, 조금 앞에서 조음된다.

'ㅜ'는 단모음 'ㅜ'와 'ㅣ'를 이어지면서 발음되는 소리인데 'ㅜ'를 짧게 발음한다.

### (3) ㅁ-계 이중모음의 교육

한국어 이중모음 '니'는 'ㄴ'과 'ㅣ'가 결합하여 'ㄴ'을 짧게 발음한 뒤에 연이어 'ㅣ'를 발음한다. 중국어에는 한국어 이중모음 '니'와 대응되는 이중모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음절의 첫 소리로 나는 '의'는 '니[ni]'로 소리난다(의자[의자], 의사[의사]). 초성에 자음이 있을 때는 [i]로 발음한다(무늬[무니]). 소유격조사 '의'는 '네'로 발음한다(엄마의 손[엄마에 손]).

위와 같이 한국어 이중모음의 발음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이중모음이 두 음으로 합쳐진 소리지만, 첫소리가 뒤 소리에 비해 길이 면에서 상대적으로 짧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중모음은 첫소리를 짧게 뒤 소리를 길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한국어의 이중모음을 잘 익히려면 무엇보다 한국어 단모음을 정확하게 익히는 것이다. 문연희(2001)에 따르면 모음의 발음을 지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음을 분화하는 조건이 혀의 높낮이와 입술의 모양 그리고 조음 위치를 정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분화 시 조건을 잘 이행하지 않으면 학습자가 자연스러운 발음을 하기는 어려워진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모음이 어떤 조건에 의해 분화되며 그 모음들 사이에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지도해야 한다.

발음 교육의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발음을 많이 들려주고 모방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발음 방법 설명 및 분석이 끝나면 다음으로 연습 단계에서는 학습 목표가 되는 이중모음을 들려주고 그 이중모음을 익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연습을 시킨다. 연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하여 학습목표가 되는 발음을 들려주고 따라하게 하고 효과적인 발음 방법을 지도해야 한다.

## IV. 결론

지금까지 이 연구에서는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중국인 초급 한국어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교육 방안을 탐구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한·중 양국의 음운 체계를 대조 및 분석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I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고 발음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발음을 교육하는 것은 반드시 학습 초기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외국어 발음 학습에 있어서 모국어와 목표어의 음절 구조에서 오는 차이 등이 있다. 두 언어 간의 음운체계를 대조 분석을 통해 학습자의 모국어와 목표어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간섭 현상과 학습자가 겪을 학습의 어려움을 예측하고 학습자의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하여 II장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체계를 분류한 다음, 분류로 대조 분석해보고 한·중 양국의 음운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냈다. 한국어와 중국의 자음은 조음 위치에서는 별 차이가 없지만 발음 방법

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면, 한국어에서만 나타나는 파열음 ㅍ[pʰ], ㅌ[tʰ], ㅋ[kʰ]는 중국어에 대응 되는 소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에게 어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 한국어의 유음 'ㄹ[l]'은 중국어의 유음 'l[l]'에 대응된다. 그러나 한국어의 'ㄹ'은 그 놓이는 위치에 따라 탄설음 '[r]'과 설측음 '[l]' 두 가지 변이음으로 나타난다. 한국어의 'ㄹ'은 설측음 '[l]'로 발음할 때는 중국어의 설측음 'l[l]'과 비슷하다. 그러나 한국어 'ㄹ'은 탄설음[r]으로 발음할 때는 중국어에서의 발음 중에서 유사한 발음이 없다. 탄설음 'r[r]'이 나타나는 위치는 유성음과 유성음 사이에서 혹은 외래어의 어두에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라디오, 나라' 등이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받침 'ㄹ[l]'의 발음을 중국어의 권설음 'er[ʌ]'에 대응시켜 혼돈이 생긴다. 한국어의 모음은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는데 중국어 모음에는 단모음과 복모음이 있다. 한국어 단모음 'ㅡ'에 해당하는 발음은 중국어에 없는 발음이며, 한국어의 이중모음 'ㅝ, ㅞ, ㅟ'는 중국어에 같은 복모음 발음이 없다. 이런 음운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준다. 이를 바탕으로 III장에서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지도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어를 교육시킬 때에는 먼저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 체계를 분류하여 비교, 대조함으로써 그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중국인 초급 학습자들에게 한국어 발음을 인식시켰다. 또한 한국어 발음을 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할 때 혀의 높낮이와 입술의 모양 그리고 조음 위치를 정확히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음 지도 방안에서도 한국어 각각의 음소에 대한 발음 방법을 살펴보고, 다양한 형식의 연습 활동을 통해 한국어 발음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상의 논의는 중국인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양한 형식의 발음 교육 방안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등의 한계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곡향봉(2005).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미정(2017). 몽골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자료 개발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알라(2008). 러시아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연이(2011). 한국어 치조 마찰음 발음 교육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만(2005).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제**. 연락.
- 김지은(1998). **우리말 양태용언 구문 연구**. 한국문화사.
- 김현숙(2011).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겹받침 발음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연희(2001). 중국 대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덕유(1998). **국어의 동사상 연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02). **文法教育의 탐구**. 한국문화사.
- 박덕유(2013). **한국어 문법의 이론과 실제**. 박문사.
- 배주채(2004). **한국어의 발음**. 삼경문화사.
- 서 영(2015). 한국어 발음 교육 내용의 선정 및 위계화.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승아(2010).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자음과 모음을 중심으로.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경애(2009).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향선(2015).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교육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요 외(2007).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발음 교육 방안.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사동(2016). 한국어 모음과 중국어 운모의 발음비교를 통한 모음 발음 교육 방안.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승연(2012). **한국어교육을 위한 응용언어학 개론**. 태학사.
- 이정명(2019). 우즈베키스탄 한국어 학습자의 발음 오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인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원해(2004). 중국학생들의 한국어 발음 오류 연구: 자음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 석사학위논문.
- 최명옥(2004). **국어 음운론**. 태학사.
- 허 용(1985). **국어음운학**. 샘문화사.
- 成惠貞(2007). 중국어 발음의 유창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연구. 한국외국어대학 석사학위논문.
- 仇美琳(2014).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운대조와 발음 교육 방안. 동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朴海燕(2004).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발음 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bstract

#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Korean Pronunciation for the Chinese Learners

Jiang, Fei

Shandong Technology and Business University

This study is concentrated to search for the effective teaching method of Korean pronunciation as one of Korean language teaching for the chinese. Pronunciation is the most basic factor in the use of language. pronunciation is the basic factor for learners to judge the fluency and accuracy of the target language in the process of communication. but people usually learn the second- language when they are adults, who are surely influenced by mother language. Therefore, it is the main purpose of this thesis to seek vocal sound system and phonological phenomena in Korean and Chinese and figure out the common and difference of these two languages through contrastive analysis.

**Key words:** *Korean Language, Korean Pronunciation, Korean-Chinese contrastive analysis, phonologic, Pronunciation Instruction*

논문투고일자: 2019.07.15.

논문심사일자: 2019.08.05.

게재확정일자: 2019.08.12.